

[이슈]

제4차 산업혁명과 문재인 정부

Better Than Yesterday

2017/09/11

■ 여타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제4차 산업혁명의 최종 귀착점은 전세계 인류의 Better Than Yesterday

제4차 산업혁명의 무수히 많은 신기술과 패러다임을 어떻게 융합할지를 견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고객)의 가치 증진에 있다. 가령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신규시장이 출현하거나 산업이 진화되면서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혁신은 단순한 생산성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건을, 적은 인력으로, 빨리 만들어서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예정으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될 듯 ⇒ 관련주 상승 모멘텀

제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가치에 대하여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물론 그런 주가수준이 버블을 만들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런 버블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투자를 일시켜 선순환 구조로 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괄목상대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권초기에는 문재인 정부 신성장 동력 정책인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더더욱 주목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에 적기라고 판단된다.

■ 제4차 산업혁명 투자 유망주

지배구조 및 융합플랫폼(엔씨소프트, 카카오), 스마트카(유니퀘스트, ISC, 에코프로, 엘앤에프,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켄텍, 삼화콘덴서, 우리산업, MDS테크, 해성디에스, 한라홀딩스, LG화학, 삼성SDI), 스마트 팩토리(에스엠코어, SK, LS산전, 포스코ICT, 한신기계, 베셀), 통신인프라(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케이엠더블유, 이노와이어리스, 엔텔스), 블록체인(삼성에스디에스), 의료용 로봇(고영), 지능정보 기술(지니뮤직, 누리텔레콤, SK코오롱PI, 테크윙, 동운아나텍, NHN한국사이버결제, 삼성전자, 더존비즈온, 효성TX, 유비벨록스, 아이콘트롤스, 에스원), 바이오헬스(코오롱, 오스템임플란트, 비트컴퓨터, 펙트론)

Analyst 이상헌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표 1> 제 4 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유망주

구분	투자유망종목
지배구조 및 융합플랫폼	엔씨소프트, 카카오 등
스마트카	에코프로, 엘앤에프,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켄텍, LG화학, 삼성SDI 등
	유니퀘스트, ISC, 삼화콘덴서, 우리산업, MDS테크, 해성디에스, 한라홀딩스 등
스마트 팩토리	에스엠코어, SK, LS산전, 포스코ICT, 한신기계, 베셀 등
통신인프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케이엠더블유, 이노와이어리스, 엔텔스 등
블록체인	삼성에스디에스 등
의료용 로봇	고영 등
지능정보기술 (IoT, 빅데이터, AI)	삼성전자, 더존비즈온, NHN한국사이버결제, 효성ITX, 유비벨록스, 아이콘트롤스, 에스원, 등
	지니뮤직, 누리텔레콤, SKC코오롱PI, 테크윙, 동운아나텍 등
바이오헬스	코오롱, 오스템임플란트, 비트컴퓨터, 펄트론 등

자료: 하이투자증권

■ 여타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제4차 산업혁명의 최종 귀착점은 전세계 인류의 Better Than Yesterday

제4차 산업혁명의 경우도 어찌 보면 실체가 없을 수도 있고 단지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을 수도 있다. 진정 그렇다라고 해도 현재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사고 환경하에서 모든 상상력(想像力)을 발휘하여 미래를 꿈꿔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그래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런저런 반발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상상력(想像力)이 현실이 되곤 한다. 기술은 인류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 줄 것이라는 약속 하에서 발전해왔는데, 다시 말해서 인류(고객)의 가치를 증진시켜야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제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투자관점에서 보면 없었던 것이 새로 등장하게 되면 가치 증분이 크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투자수익률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전제(前提)는 새로운 기술로 인한 제품 및 서비스가 과연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겠는가 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무수히 많은 신기술과 패러다임을 어떻게 융합할지를 견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객의 가치 증진에 있다. 가령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신규시장이 출현하거나 산업이 진화되면서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혁신은 단순한 생산성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건을, 적은 인력으로, 빨리 만들어서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 혁신에 의한 산업혁명은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새로 출현하여 사회 및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상승을 넘어 항상 버블까지 조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혁신동인이 증기기관인 제1차 산업혁명에서는 철도버블을, 전기발명인 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동차 등 다우산업지수 버블을, 컴퓨터, 인터넷 등이 등장한 제3차 산업혁명에서는 닷컴버블을 촉발시켰다.

제4차 산업혁명의 경우 지능정보기술이 과거 기계가 진입하지 못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계가 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촉발함에 따라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신기술과 패러다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곧 변화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므로 투자환경이 어느 때 보다도 좋을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투자자에게는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수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를 해야 하므로 기회 뿐만 아니라 리스크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 관점에서 보다 분명한 점은 신기술 및 패러다임으로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지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무수히 많은 신기술과 패러다임을 어떻게 융합할지를 견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고객가치의 향상이다. 결국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주식가치는 고객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표 2> 산업혁명의 발전단계 특징 및 정의

구분	연도	특징	정의
1차 산업혁명	1784년	- 증기 및 수력 기관 - 기계식 생산설비	- 가축, 인력 등 생물자원에서 화석 연료 사용 및 기계 사용이 가능한 기계적 혁명 - 영국이 최대 공업대국으로 부상
2차 산업혁명	1870년	- 전기사용 - 분업과 대량 생산	- 컨베이어시스템, 전기 등을 통한 대량생산체계 구축 -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 구축
3차 산업혁명	1969년	- 전자기기, IT - 자동화 생산과 인터넷	- 정보의 생성·가공·공유를 가능하게하는 정보기술시대의 개막
4차 산업혁명	?	-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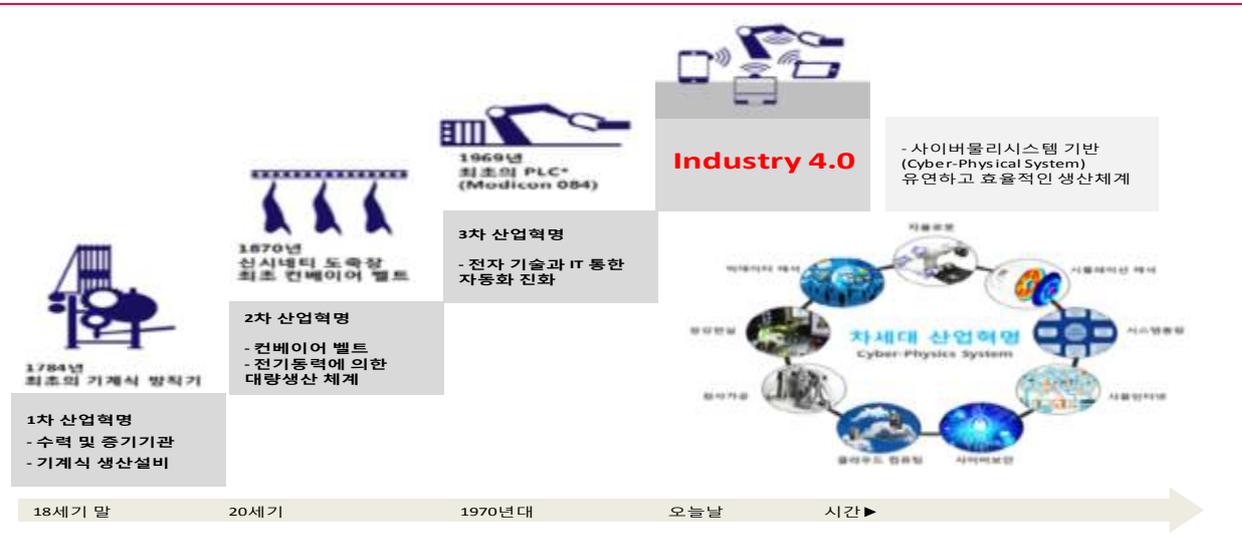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 하이투자증권

<표 3> 제 4 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기술	내용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네트워크 등으로 주고받는 기술 - 인간의 개입없이 사물 상호간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 (예시) IoT+AI+빅데이터+로봇공학=스마트 공장(CPS)
로봇공학	- 로봇공학에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함에 따라 더욱 뛰어난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정밀농업에서 간호까지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할만큼 활용도가 향상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 입체적으로 형성된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에 원료를 층층이 겹쳐 쌓아 유형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로 소형 의료 임플란트에서 대형 풍력발전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 가능 (예시) 3D프린팅+바이오기술=인공장기
빅데이터 (Big Data)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하면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 도모 가능 (예시) 빅데이터+AI+금융정보=투자 로봇어드바이저 빅데이터+AI+의학정보=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인공지능 (AI)	-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그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예시) AI+IoT+자동차=무인자율주행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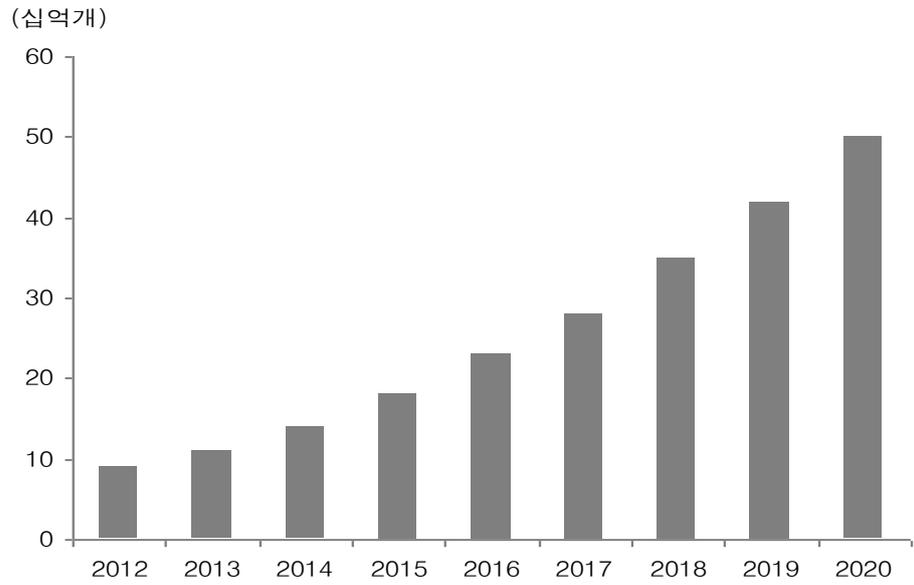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 하이투자증권

<그림 1>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혁명 단계



자료: NIA, 하이투자증권

<그림 2>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Connected objects)의 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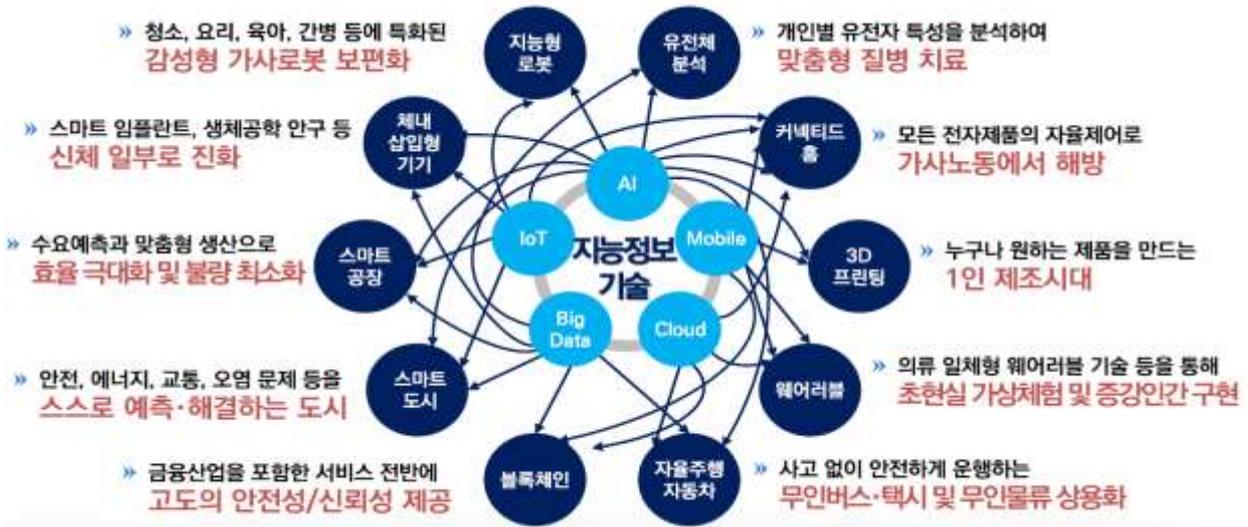
자료: The Internet of Everything in Motion(Cisco 2013), 하이투자증권

<그림 3> 제 4 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기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이투자증권

<그림 4>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기술의 융합 예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이투자증권

<그림 5> 1920년부터 1929년 9월까지 다우산업지수 216% 상승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 6> 1990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나스닥 지수 990% 상승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 7> 1999년 2월 24일~2000년 3월 10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300% 가까이 급등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 과거 신정부에서의 신성장동력 정책 등이 주식시장에서 주목 받음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은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권 교체시마다 신성장 동력이 바뀌어 왔는데, 이는 그 정부만의 고유한 특색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환경 및 정세 변화 등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정부주도하에 미래 성장동력 가치에 대하여는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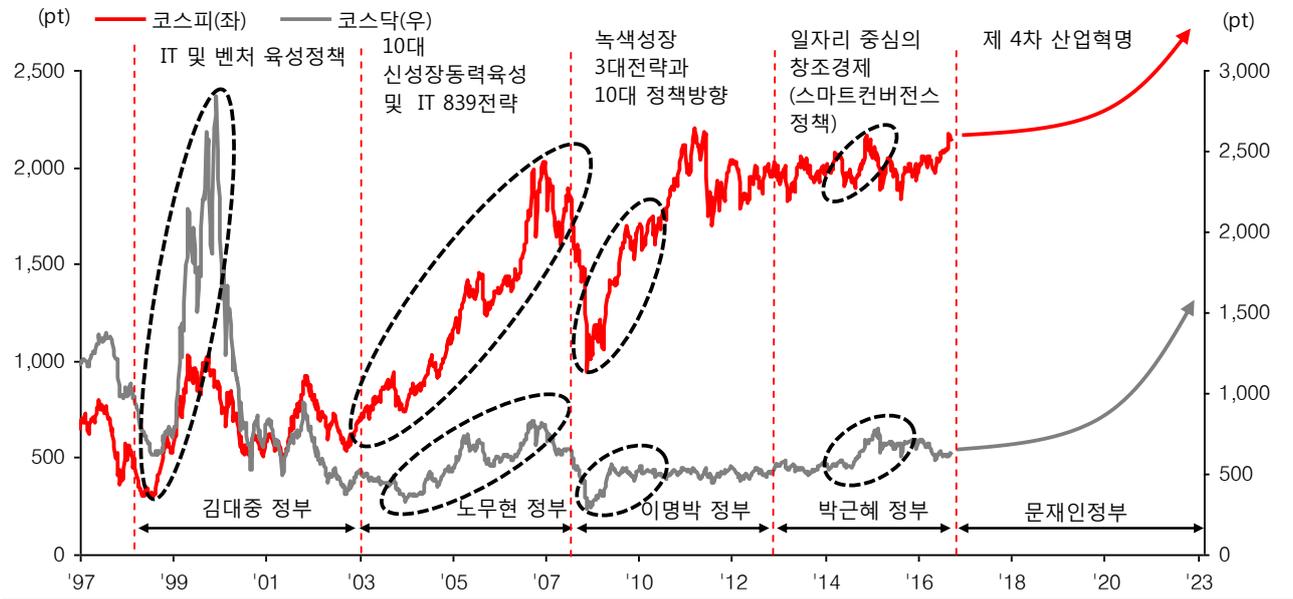
지난 1998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세계적으로는 IT붐이 일어나면서 벤처 육성을 통해 창업의욕을 고취시켰다. 특히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비전 2025에서는 우선 사업으로 IT, BT, NT, ST(우주항공), ET(에너지), CT(문화기술) 등의 6대 기술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에 초고속정보망을 조기에 구축하였으며 벤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대거 등장,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주식/검색서비스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 등이 크게 도약하면서 인터넷 및 정보통신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하였다.

2003년 취임한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책으로 불거진 신용카드대란을 뒷수습 하였으며 분배와 복지를 확대하면서 균형발전을 중시 하였다. 또한 2003년 8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를 선정하였다. 또한 IT839전략을 수립해 인프라/서비스/신성장동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때 인터넷사용자가 3000만명을, 전자상거래 규모도 300조원을 돌파하였다. 코스닥에서는 이런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IT839전략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주도하면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LED, 연료전지, 2차전지, 그린카 등의 녹색성장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주목 받았다. 또한 통신과 방송 결합에 따른 기회 창출을 위해 인터넷전화/IPTV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IT와 타 영역이 융합해 그린IT/건설IT/U시티 등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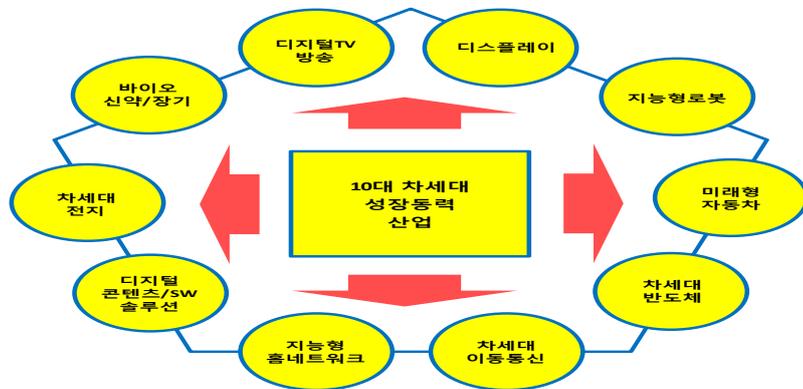
2013년 취임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하여 스마트컨버전스 정책을 추진하였다. 스마트컨버전스는 인프라가 고도화됨에 따라 ICT을 활용하여 연관서비스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동태적, 입체적 개념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환경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창조성과 혁신을 향상시키는 중장기적 접근으로 단순 컨버전스형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스마트 컨버전스형 산업생태계 형성에 주력하여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 운영방식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9대 전략산업(지능형 로봇, 스마트카,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5세대 이동통신, 해양플랜트, 실감형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4대 기반산업(지능형 반도체, 미래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인 13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림 8> 각 정권별 신성장동력 정책 및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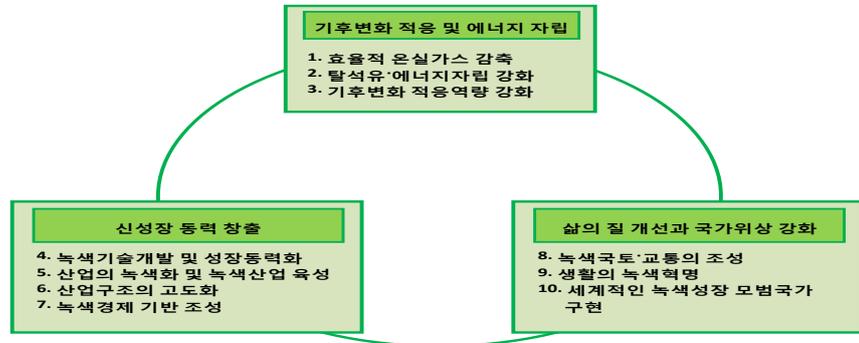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 9> 노무현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자료: 정부부처, 하이투자증권

<그림 10>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하이투자증권

<그림 11> 박근혜 정부의 13대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하이투자증권

■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국가나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성장이 정체되어 가는 전통산업의 재도약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정책인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 구현, 혁신 창업국가 구현,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 실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혁신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는 소프트웨어 강국 및 ICT 르네상스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 강국 및 ICT 르네상스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에는 5G 및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 및 확산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2017년 IoT 전용망 구축,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의 경우는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표 2> 문재인 대통령 제 4 차 산업혁명 관련 세부 공약 및 내용

세부공약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혁신 창업국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 인공지능이 꽃 피울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 공공서비스 스타트업 창업 지원 -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정보의 무료 제공을 통한 창업 지원 -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대상 법인세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투자 혁신 체계 수립을 통한 ICT인프라 고도화 - 미래 시장 개발 촉진을 위한 시장 기업 성장 요건 조성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ICT 시장 및 ICT기반 융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규제 체계 개선 - 정보통신 시장 참여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 및 상생 환경 구축 - 산업간 융합을 위한 진입/M&A/회계 규제 완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및 기반기술 지원 육성 - ICT기반 융합 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ICT강국을 상징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 확산 - 견고한 ICT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 - 정부 ICT R&D에 대한 전략 및 역할 재정립 - 시장 활성화로서 정부의 역할 재정립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 체계 구축 - 정부 업무의 지능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민을 섬기는 스마트한 정부행정 실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 기후변화혁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및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산업 육성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 한국형 자율협력주행 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 드론산업 육성

자료: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 제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3단계 계획

향후 5년간 제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은 3단계로 나뉜다. 먼저 2018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즉,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도 아래 5G 시범서비스, IoT 전용망 구축, ICT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체질 개선부터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 분야별 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시기에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5G 통신 상용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과 지능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도 2단계 이행목표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2022년까지 마지막 3단계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 발굴 목표를 총 50종으로 정했다. 지능정보 핵심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75% 선에서 90% 선으로 빠르게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도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예정으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될 듯 ⇒ 관련주 상승 모멘텀

지난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으며 9월 안으로 위원회 설치를 완료하여 2017년 말까지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로, 민/관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논의하고 국가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즉,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그 동안 신정부가 출현할 때 마다 나타난 수많은 위원회들은 홍보성 이벤트 개최에만 여념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부처간의 협업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아젠다 설정 및 로드맵을 마련하여,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통합하면서 어려운 규제개혁 추진 및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 기업 육성할 예정으로 연구 개발을 위해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 부동자금을 벤처기업 지원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기술금융체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한편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가치에 대하여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물론 그런 주가 수준이 버블을 만들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런 버블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투자를 일으켜 선순환 구조로 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팔목상대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권초기에는 문재인 정부 신성장 동력 정책인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더더욱 주목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에 적기라고 판단된다.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

